

# “달콤 쌉싸름한 이 맛, 독일맥주 울고 갑니다”

## 맥주 제조 일반면허 1호 고창출신 세븐 브로이 맥주 김강삼 대표

“생맥주 전문점 창업에서부터 소규모 맥주 생산업체 운영, 그리고 세븐브로이 공장까지 ‘맥주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만큼 이제 세계 무대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김강삼(55) ‘세븐브로이’ 대표. 그는 대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는 맥주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지난 2011년 10월 맥주 제조를 위한 일반 면허 1호를 획득한 김 대표는 청정지역 강원도 횡성에 맥주공장을 설립했다. 지난 한 명 얻은 곳이었지만 ‘맥주의 생명’은 물이라는 생각에 깨끗한 천연암반수를 얻을 수 있고 수도권 소비자들과 가까운 강원도를 선택했다. 그는 세븐브로이를 본연의 맛을 내는 ‘기초에 충실한 맥주’라고 정의했다. “1516년 독일의 빌헬름 4세가 발표한 맥

주순수령은 맥주를 만들 때 물과 맥아, 홉만을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맥주는 지금까지 이것을 지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를 따른 것이 세븐브로이입니다.”

김강삼 대표는 외식업에 종사하다가 2003년 서울역 부근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시작했다. 차별화된 특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맛있는 맥주’를 위해 독일에서 맥주양조기술자를 직접 초빙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기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던 라거방식 맥주 맛에 익숙해진 고객들은 새로운 에일방식 맥주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11년 12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첫 선을 보인 뒤 긍정적인 평이 이어졌다. ‘틀새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김 대표는 본격적으로 맥주 제조에 나섰다.

이후 2012년 10월부터 ‘세븐브로이 캔맥주’를 홈플러스에 납품하면서 전국적 판매망을 갖췄고 지난 11일에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오고,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라거 이외의 맥주를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연히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에일방식 맥주가 관심을 얻으면서 세븐브로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에일방식 맥주가 깊은 맛과 긴 여운을 가졌다고 강조한다. 세븐브로이는 짙은 보리료 단맛을 내는 맥아, 쓴맛을 내는 홉을 아낌없이 넣어 기존에 판매되는 맥주보다 달콤 쌉싸름하다. 맥아 비중이 높아 알코올 도수도 일반 라거방식 맥주에 비해 0.5~1.0% 더 높다. ‘황제의 맥주’라 불리지만 국내 생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맛 볼

수 없었다. 기존 라거방식 맥주의 경우 맑고 청량감이 높다. 상대적으로 에일방식은 쓴맛이 강해 고객들의 호불호가 분명하지만 마니아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세븐브로이는 국내 맥주 시장을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 마니아층이 확실한 에일방식을 선택했다.

김강삼 대표는 단순한 ‘사장님’이 아니다. 그가 취미한 맥주 제조 일반 면허는 주류업계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1993년 동양맥주(현 오비맥주)와 조선맥주(현 하이트 맥주)가 조선총독부에서 받은 이후 첫 맥주 제조 면허이기 때문이다. 77년 만에 맥주 면허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도 ‘세븐(7)브로이’로 정했다. 최고급 호텔을 상징하는 7성 호텔처럼 ‘7성급 맥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세븐브로이는 남구 봉선동의 한 생맥주 전문점과 계약을 성사시켜 지난 18일부터 광주 시민들에게 에일방식 맥주를 선보이



고 있다. 김강삼 대표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이름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맥주산업에 뛰어든 중소기업이 이미 탄탄한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과 경쟁

하며 높은 주류세를 견뎌내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맛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소비자에게 다가가 세븐브로이를 알리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김혁중 광주대 총장, 美 연수장학생 격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지난 18일 접견실에서 자매대학인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에서 5주간 연수할 ‘제13기 하계어학연수’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 농어촌공, 담양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조규정) 직원 23명은 최근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의 노후주택을 찾아 30년 이상된 낡은 지붕을 수리하는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양세열기자 hot@

## 아이안과, 개원 30주년 희망 장학금 전달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아이안과(대표원장 윤장현)는 19일 진월점에서 희망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 기탁식에는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과 문성고등학교 임원 등이 참석했다.

## 그리운 고향, 詩가 되었습니다

### 우전 임원식 시인 신작 ‘초록 빛소리’ 펴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고향이 있고 모든 원초적 감정은 어린 시절의 텃자리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향수가 점점 짙어지는 건 아마 이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전 임원식(72) 시인이 신작 ‘초록 빛소리’를 펴냈다. 2007년 첫 시집 ‘당신의 텃밭’ 발간 이후 일곱번째 시집이다. 시집에 실린

85편의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시인의 자아 성찰이 주를 이룬다.

원래 임 시인은 평론과 수필을 썼다. 그러나 점차 시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시에 매력이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고 한다.

해설을 쓴 오세영 시인은 “시의 화자가 일인칭인 것은 수필의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상상의 나가 현실의 나로 치환되며 이는 곧 시인 자신임을 드러낸다”며 의미를 부여



한다. 이번 시집에는 김진우 중앙대 음대 학장이 ‘물 흐르는 소리’, ‘여름밤’ 등 임 시인의 시에 직접 곡을 붙인 악보도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임 시인은 “그때 그때 떠오르는 내면의 소리를 진솔하게 쓸 수 있다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시를 좋아한다”며 “앞으로도 1년에 한 권씩 시집을 낸다는 각오로 창작을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7년간 청소년수련관 봉사

### 동신대 윤석민씨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석민(4년·26)씨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 추진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광산구 청소년문화관을 활성화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윤씨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일탈의 경우 바람직한 놀이문화가 마땅치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학교 밖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봉사활동의 초점을 맞춰 왔다.

먼저 ‘관청별세’ 풍기던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문화존의 벽에 예쁜 벽화를 그리고, 참고로 쓰이던 공간을 동아리실로 꾸민 후



비보잉, 노래교실, 방송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도 해주었고, 동신대 링크사업단 지원을 받아 비즈공예반도 운영했으며, 장애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인 트라이앵글 활동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이곳을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200여명에서 5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금호고속, 28일까지 헌혈행사



금호고속(사장 김성산) 임직원들이 19일 단체 헌혈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유·스퀘어에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에는 28일까지 300여 명이 동참한다.

금호고속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전사적으로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헌혈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원 가족과 백혈병환자, 혈액암 아동들을 위해 이날 모인 헌혈증서를 모두 기증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지난 5월까지 209회의 헌혈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 온 금호고속 ‘헌혈왕’ 2명에게 상무사원도 동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사랑에 빠진 ‘캠틴 박’

### 박지성, 오늘 열애설 공식 입장 발표

열애설에 휩싸인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이저스)이 직접 입을 연다.

박지성은 소속사를 통해 20일 오전 9시30분 수월월드컵 열애설에 휩싸인 김민지(왼쪽) SBS 아나운서와 박지성. 열애설에 휩싸인 김민지(왼쪽) SBS 아나운서와 박지성. 열애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박지성은 이날 김민지(28) SBS 아나운서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스포츠저널닷컴은 “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이란전이 펼쳐진 18일 밤 박지성이 김민지 아나운서와 한강시민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대표팀을 응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도 실었다. 박지성은 20일 오전 11시 자신이 이사회로 있는 박지성 재단 행사에 참가,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애초 계획된 행사에 앞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한편, SBS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이라 잘 모른다”며 “담당 팀장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선화여고와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김민지 아나운서는 2010년 SBS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현재 배성재 아나운서와 함께 SBS 축구 전문 프로그램 ‘풋볼매거진 골!’을 진행하고 있고,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생방송 투데이’ 진행도 맡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선대 소금영 교수 마취학회 우수초록상

조선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금영 교수가 최근 제17차 대한산과마취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자궁 내 성장 지연이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이와 함께 소금영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9대 대한산과마취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소 교수는 앞으로 2년 동안 공식 업무 수행하면서 산과마취 영역의 발전과 성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김선복씨 장남 문국관군 이춘상(한국과학기술원 부장)·하희옥씨 장녀 선영양=22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봉향교회.

###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제8회 동창회(회장 정현환) 정기총회=21일(금) 오전 11시 30분 광주 동구 하림(크호텔 6층 대연회장 062-222-5908). ▲조선대학교 조우회(회장 민경재) 월례회=25일(화) 오후 6시 30분 오륙도 식당 062-227-9850.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언) 제3회 총동문회 장배 유은 동문 한마음 골프대회=25일(화) 오전 11시 무안컨트리클럽 062-361-2680.

###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임원회의 개최=22일(토) 오전 11시 종회 사무실 3층 062-228-3368.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여성이화회 월례회의=22일(토)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011-605-2059.

### 향우회

▲재광나주 향우회 제22차 정기총회(회장 나도팔) 겸 나주인 모두의 만남의 장=29일(토) 오후 4시 광주 알펜시아웨딩홀 062-227-8880.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장애이동통합교육보조사업단 =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

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생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친환경영농사업단 =고연령, 저학력, 무기술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 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령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한부 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 모집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모집

▲특정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중앙지부지 수중정화활동 참가자모집 =22일(토) 오전 10시 30분 특전사 전역자 대상 특전예비군(동원예비군 제외) 062-225-6500. 010-5143-1214. ▲바이오밀(유신군·호소) 두암점

=장, 소화기 질환, 과근, 변비, 아기가 이유식, 건강, 아토피, 경년기, 관절, 대사성질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회원 수시모집 062-266-5800, 010-6614-2320. ▲힐링 타이로마 회원은 친구·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상무지구 종은빌딩 4층 062-372-2023.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 =여성이 장애인 분을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대학생 봉사단은 자원봉사 상설체합·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인전통봉사단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풍요 봉사활동으로 외국인인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층재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

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 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 부음

▲김춘성씨 별세 병친·병윤씨 부친상=발인 20일(목) 조선대병원 장

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수업씨 별세 김진택씨 모친상 =발인 2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윤경씨 별세 열이씨 부친상 =발인 2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손영순씨 별세 이근행·경행·경숙·경심·경옥씨 모친상=발인 20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故 韓 景 履 君(85세)</b> 子/子婦: 남익환/리효순, 용경/박수경 女/婿: 명숙/김윤규, 경숙/신성우, 은순, 은영/김현태 男/妻: 남재성 •호실: 201호 •장지: 고흥포구면선영	<b>故 張 亨 浩 君(59세)</b> 子: 장승욱, 승경 女/婿: 장수영/김원화 未亡人: 이윤남 •호실: 301호 •장지: 담양 남면 선영
<b>故 송 후 덕 君(86세)</b> 子/子婦: 이만식/함영금 女/婿: 이연심/김철모, 은자/백민기, 민자/김영철 •호실: 401호 •장지: 무안 해계 선영	<b>故 임 태 윤(남/72세)</b> 子/子婦: 임승재/이숙현, 승철 孫: 임민재, 용승 •호실: 101호 •장지: 영락공원

마음까지 빈원한 **孝 金 浩 長 례 식 堂**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